

코퍼스 중심의 번역학 연구

정 호 정
(계명대)

1. 머리말

언어학 중심 접근법이 근간을 이루어온 전통적 번역학은 커뮤니케이션 이론, 정보처리 이론, 인지심리학 및 텍스트 언어학 이론 등 인접학문의 성과에서 성장 모멘텀을 찾아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반영하여 번역학이 더 이상 단일학문분야의 접근법으로는 포괄적 연구가 불가능하며, 학제간 접근이 불가피한 종합학문분야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인식의 반영으로 다양하고 때로 이질적이어서 양립이 불가능한 학설과 학파까지 등장하였으며, 이들이 서로 이론적 설명력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번역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학자들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는 추상적 개념 소개와 논의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접근법들의 설명력을 검증하고 더 나아가 공통분모를 규정하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¹⁾ 본 논

1) 최근 번역학전문학술지 *Target*에서 Chesterman과 Arrojo가 “Shared Ground in Translation Studies”란 논문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다양

문은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증적 연구의 틀로서 코퍼스 중심 번역학연구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작은 계기를 마련하려는 작은 시도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는 우선 코퍼스 언어학과 코퍼스 중심 번역학 접근법을 개괄한다. 그런 다음 코퍼스 중심 번역학연구의 대상인 코퍼스의 종류를 소개하고, 각 코퍼스 유형별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현황을 제시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코퍼스 중심 번역학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코퍼스 중심 번역학의 연구 결과를 번역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코퍼스 언어학과 코퍼스 중심의 언어학

2.1 코퍼스 언어학의 정의 및 발달

코퍼스 언어학은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사용의 구체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언어를 연구하는 접근법”(McEnery & Wilson 1)이다. 구문론, 음운론, 화용론, 담화분석론 같은 언어학의 하위분야와 구분되는 것은 이것이 설명이나 기술(記述)을 요하는 언어의 또 다른 연구분야가 아니라 언어를 연구하는 방식 또는 방법론이라는 점이다. Bowker와 Pearson은 코퍼스 언어학을 “언어사용자들이 이리이러하게 발화할지 모른다, 혹은 이리이러하게 발화해야 한다고 [이에 대해] 가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발화한 구체적 예”들을 연구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자료중심의 실증적 연구방식의 발전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붐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출현은 Chomsky의 등장 이전으로 거슬러 간다. 그러나 Chomsky가 인간의 언어사용을 언어능력(competence)과 언어수행능력(performance)으로 양분하고, 후자를 오류투성이 용례들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한 학자들이 이에 대한 반응을 연속적으로 표명하고 이를 다시 시리즈로 게재한 바 있다. 이것은 번역학의 다양한 접근법 가운데 양립 불가능한 접근법에 대한 인식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Target 12:1 등 참조).

적극적인 언어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기에 이르면서, 코퍼스 언어학 역시 상당 기간 소강기를 겪게 된다. 코퍼스 언어학의 주 연구대상인 코퍼스가 언어사용자의 실제 발화 용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사회전반에의 확산을 계기로 코퍼스 언어학은 1980년 이후 봄을 이루게 된다.

선형적 합리주의로 대표되는 추상적 접근법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코퍼스 언어학이 다시 학계의 주목과 지지를 받는 접근법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에는 소위 탁상공론적 접근법(*armchair linguistics*)에 대한 자성의 분위기가 크게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Fillmore는 구체적인 언어사용 용례들로부터 유려되어 사변적·추상적 접근법만을 고집하던 기존의 연구풍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제 언어사용 현실을 연구에 접목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코퍼스 언어학은 지난 10년 동안 언어학 연구 방법론으로서 점점 더 인기를 얻게 되었다.

2.2 코퍼스 중심 번역학

코퍼스 중심 번역학 (*Corpus-based Approach to Translation Studies, CTS*)이란 말 그대로 구체적 언어사용 기록인 코퍼스를 중심으로 번역학을 접근하는 연구 방법론이다. 코퍼스 언어학이 화용론, 담화분석, 의미론, 음운론 같은 언어 연구의 하위분야가 아닌 것처럼, 코퍼스 중심 번역학 역시 번역이론, 번역 평가 및 비평, 번역 교육 등 번역학의 하부 연구분야라기보다 코퍼스라는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는 연구방식을 가리킨다.

Tymoczko는 “코퍼스 중심 번역학이야말로 번역학이 중요한 학문분야로 정립되고 더 나아가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제1문단)을 한다는 말로 코퍼스 중심 번역학이 오늘날 번역학의 위상과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을 요약하고 있다.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번역학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접근법들을 포함하여 다양각색의 서로 다른 접근법과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때문에 번역학의 현주소를 가리키기 위해 Tymoczko는 번역학이 “악명 높을 정도로 논란이 많은(notoriously contentious 제7문단)” 학문분야라 지적하였고, Hatim은 “방이 무수히 많은 집(a house of many rooms, 8-11)”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번역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번역사의 역할, 번역 평가 및 비평에 이르기까지 양립할 수 없는 무수한 추상적 주장과 가설이 쏟아져 나올 뿐, 이들의 주장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설명력을 갖는지 비교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역시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각 이론과 학파의 주장을 경험적·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의 수행과 결과 축적을 가능하게 해주는 코퍼스 중심 번역학은 그 효용이 어느 때보다 더 크다 할 수 있겠다. Olohan이 설파한 것처럼, 코퍼스를 이용한 접근법의 범위, 중요성, 유용성, 적합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연구에 사용할 때 번역학이 추구하는 연구, 즉 번역 결과물로서의 번역 뿐 아니라 번역 과정까지를 모두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코퍼스 중심 번역학에 있어서의 코퍼스

3.1 정의 및 구성 기준

일반적으로 ‘코퍼스’는 “실제로 언어사용자들이 사용한 텍스트²⁾를 대규모로 일정한 기준(들)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수집해놓은 것” (Bowker and Pearson 1)을 가리킨다. 현재 코퍼스 중심의 연구를 표방하면서 소수의 국한된 자료를 수작업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 하겠다. McEnergy와 Wilson(21)은 수집된 텍스트의 대표성, 규모의 유한성, 컴퓨터 방식 처리가 가능한 포맷, 표준 참조 가능성을 기준으로 꼽는 반면, Bowker와 Pearson(9)은 언어사용자들이 사용한 실제 텍스트, 체계적 선별기준, 규모의 유

2) 여기서의 ‘텍스트’란 언어사용자, 즉 발화자나 문서 작성자가 특정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하면서 의도하는 커뮤니케이션 의도가 독립적으로 구현된 발화 또는 문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de Beaugrande & Dressler (1981)의 “communicative occurrences of intention” 또는 Nord (1991, 1997)의 “communicative act-in-situation”의 정의를 받아들였다.

한성,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포맷을 들고 있다. 이처럼 학자에 따라 코퍼스구성 기준에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때 코퍼스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실제 텍스트 가운데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텍스트들을 연구대상 언어 양태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정량 수집한 텍스트 모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2 코퍼스의 종류

코퍼스 중심 번역학연구에 사용되는 코퍼스는 크게 일반 코퍼스(*general corpora*)와 번역중심 코퍼스(*translation-driven corpora*)로 나뉘어진다. 일반 코퍼스에 비해 번역중심 코퍼스는 (1) 실제 번역 또는 번역 행위에 도움이 되는 틀을 도출하고 (2) 번역 또는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목적으로 구성되는 코퍼스를 가리킨다. 번역중심 코퍼스는 다시 유사 코퍼스(*comparable corpus*)와 병렬 코퍼스(*parallel corpus*)로 나뉜다.

병렬 코퍼스란 원문 텍스트와 그의 번역에 해당하는 번역 텍스트를 쌍으로 결합시켜 모두 코퍼스에 포함시키는 구축방식, 혹은 그 결과물을 가리킨다. 이에 비해 유사 코퍼스는 일정한 성격의 텍스트들을 모아 하위 코퍼스(*sub-corpus*)로 구축하고, 이 코퍼스에 수집된 텍스트와 비교될 수 있는 텍스트들을 모아 다시 별도의 하위 코퍼스로 구축해놓은 것을 가리킨다. 즉 ‘1990년대 이후 발표된 한국 단편문학작품’과 이를 영어로 번역해놓은 ‘영역작품’의 양자를 모두 하나의 코퍼스에 수집해놓은 것이 병렬 코퍼스의 예라면, ‘한국 주요 일간지에 나타난 비(非)번역 신문 기사’를 모은 하위 코퍼스와 ‘한국 주요 일간지에 나타난 기사 가운데 외국 기사를 번역게재한 번역 신문 기사’를 모은 하위 코퍼스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 두 하위 코퍼스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번역을 연구하는 것이 ‘유사 코퍼스’이다.

Hofland와 Johansson (1994, Altenberg & Granger 7-10에서 인용) 등은 병렬 코퍼스가 ‘진정한 번역 중심 코퍼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한 코퍼스가 본질적으로 더 우수하다거나 하는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나 질문이 무엇인가에 따라 어떤 코퍼스를 사용할 때 좀더 적합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이 판단에 따라 적합한

코퍼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병렬 코퍼스의 경우에는 원문 텍스트와 번역문 텍스트를 텍스트 단위로 비교하거나 원문 텍스트의 특정 부분이 번역 텍스트 해당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직접 대조/비교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대조/비교가 연구의 초점이라면 유사 코퍼스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반면 비번역문 텍스트로 구성된 하위 코퍼스와 번역문 텍스트로 구성된 하위 코퍼스의 비교를 통해 비번역문에 비해 번역문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파악/확인하고자 할 경우, 구축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병렬 코퍼스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Frawley의 명명법에 따라 번역문에만 고유한 특성, 즉 출발언어도 아니고 도착언어도 아닌 “제삼의 언어(a third code, 1984: Øverås 제3문단에서 인용)”로서 번역언어가 갖는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유사 코퍼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4. 코퍼스 중심 언어학의 현재 연구 방향

앞서 연구목적이나 연구질문에 따라 적합한 코퍼스의 유형을 선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코퍼스를 이용한 연구는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다.

4.1 어휘론/구문론 중심의 연구

코퍼스 중심의 번역학연구 방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어휘론/구문론 중심의 연구 방향이다. 즉 번역텍스트와 비번역 텍스트를 어휘적 구문적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어휘 밀도(lexical density)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특정 텍스트를 구성하는 전체 어휘 수 가운데 구체적 의미를 갖는 의미어(semantic words)와 독립적인 의미보다는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 기능을 일차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어(functional words)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번역 텍스트의 경우 비번역 텍스트에 비해 어휘밀도가 낮고, 따라서 전체 텍스트 내에서 의미어의 사용비중에

비해 기능어의 사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등의 보고(Laviosa, 1998b)가 이러한 연구방식을 대표한다.

두 번째가 ‘토큰 대 타입 비율’을 연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텍스트에서 ‘자율’이라는 말이 세 번 쓰였다면 이는 하나의 ‘타입’에 해당하는 어휘가 세 번의 ‘토큰’으로 사용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타입과 토큰의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얼마나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즉 이 비율이 더 높을수록 해당 텍스트에 좀더 다양한 어휘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

세 번째가 특정 품사의 사용 빈도를 비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결속구조를 강화하는 문두접속사의 사용빈도를 비교하거나 특정 언어에 자주 사용되는 불변화사(particle)의 사용빈도를 비교함으로써 비번역텍스트와 다른 번역 텍스트의 특징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곧이어 다루어질 번역 보편소 후보 가운데 하나인 ‘외연화(explicitation)’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4.2 번역보편소

앞서 열거한 어휘론 구문론 중심의 연구방식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번역 보편소(translation universals)를 찾아내고 입증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한다. 즉 번역작업 대상 언어로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들이 사용되었는가에 상관없이 번역 텍스트이면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현상 또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찾아내고 규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번역 보편소 주창자들의 주장이다 (Baker 183; Toury 209-10; Kenny, 2001: 제1 및 제2문단). 현재까지의 문헌에 나타나있는 번역 보편소의 위상은 그 개념을 소개하고 경험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목격되고 있다는 일차적 보고에 국한될 뿐, 아직 구체적/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 현재 문헌에서 번역 보편소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Cheong, 2004: 50-51).

- (1) 외연화(explicitation): 번역사가 원문 텍스트에 언어적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고 문맥이나 상황에서 추출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나타나있는 정보를 번역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구현하는 경향
- (2) 텍스트의 평면화(text flattening): 번역 텍스트에서 독창적인 표현을 구

사하거나 상대적으로 자주 쓰이지 않는 문법구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해당 언어 문법을 좀더 철저히 준수하는 경향. 즉 도착언어의 전형적인 패턴에 부합하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원문의 모호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표현 또는 구조를 사용하는 것, 원문의 의도적인 반복 표현 등을 피하는 것, 그리고 번역 텍스트 독자의 기호에 보다 적합하도록 원문 텍스트의 일부를 변형 처리 하는 세니타이제이션(sanitization) 등이 이에 해당.

- (3) 도착어 표현의 과다 사용: 번역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도착언어 문화권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도록 하기 위한 도착어 표현의 과다사용

이 가운데 특히 외연화는 Blum-Kulka가 외연화 가설(the explicitation hypothesis)을 주장한 이래 비교적 주목을 받아온 대표적 번역보편소 후보이다. Baker와 Olohan(141-158)은 실제로 등위 접속사 *that*이 비번역 텍스트에서보다 번역텍스트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현상의 보고를 통해 외연화에 접근하였다. 반면 Vanderauwera, Øverås, Altenberg, Vehmas-Lehto (1989, Klaudy, 1993a: 제12문단에서 인용) 등은 문두접속사가 비번역텍스트에서보다 번역 텍스트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것을 외연화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하고 있다.

두 번째로 표현의 관용화/보수화 가설(the conventionality hypothesis)은 번역텍스트에서는 비번역텍스트에서보다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선택에 있어서 일반적 공기 제약(collocation constraints)에 더 충실한 반면 독창적인 사용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단순화 역시 번역텍스트의 경우 다양한 문장구조나 기법의 사용보다 단순화된 스타일이 자주 목격된다는 것인데, Vanderauwera (95)가 영어로 번역된 네덜란드어 소설에 대한 연구에서 침묵과 긴장을 나타내는 원문 텍스트의 기법들이 대체로 생략되어 단순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한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번역대상 언어의 특성에 상관없이 번역문이면 모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공통특성의 존재를 전제하고 이를 검증 내지 입증하는데 관심의 초점이 있다.

4.3 언어간 등가표현 추출 및 다언어 등가 사전 편찬

어휘적/구문적 관심에서 코퍼스를 이용한 앞서의 연구방식에 비해 두 번째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분야는 ‘번역을 위한 등가표현 추출’ 및 ‘다언어 사전 편찬을 위한 대응어/등가어 추출’의 두 분야로 크게 나누어진다. 기본적으로는 다언어간 대응어/등가표현 추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주요관심이 번역사 또는 번역학자들의 필요인지 혹은 사전편찬자의 필요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 설계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번역을 위한 등가표현 추출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Vintar (1999, 2001, Altenberg & Granger, 2002에서 인용)의 「번역도구로서의 병렬 코퍼스 (Parallel Corpus as a Translation Aid: Exploring EU Terminology in the ELAN Slovene-English Parallel Corpus)」 및 「번역 용어 추출에 있어서의 병렬 코퍼스 사용 (Using Parallel Corpora for Translation-Oriented Term Extraction)」을 들 수 있다. Gamper (1999, Altenberg & Granger 9-10에서 인용)가 추진하고 있는 CATEX (Computer-Assisted Terminology Extraction) 프로젝트 역시 번역에 사용할 용어목록 작성을 위한 병렬 코퍼스 구축이 핵심이다. Ohlsson (Altenberg & Granger 10에서 인용)의 에스토니아어-스웨덴어 간 어휘 데이터베이스 (the Estonian-Swedish Lexical Database) 역시 같은 맥락의 작업이다.

반면 다언어사전 편찬을 위한 코퍼스 구축 및 이용 작업 역시 활발해서 Dunning (1993), Dagan et al. (1993), Gaussier and Langé (1995), Teubert (1998), Chodkiewicz et al. (2002) (이상 모두 Altenberg & Granger, 9-10에서 인용) 등이 대표적인 연구로 꼽힌다. 현재 이 분야의 연구는 단순히 단일 단어 차원의 대응어/등가어 추출에 국한되지 않고 숙어처럼 여러 단어들 이 함께 굳어진 관용적 표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Cardey와 Greenfield (2002, Altenberg & Granger 9-10에서 인용)가 대표적이다.

5. 향후 연구 방향을 위한 제언

5.1 보다 다양한 연구방식의 필요성

앞서 소개한 것들은 대체로 번역텍스트의 경우 어떠한 언어사용행태상의 특성을 보이는가 파악하고 기술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다양한 번역사들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수행하고 쏟아내는 번역텍스트 들이 어떤 구체적 특성을 갖는지, 보편적으로 어떤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 역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번역학연구에서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는 문학번역과 기술전문번역, 규범적 번역연구(normative approach) 대 기술 중심 번역연구(descriptive approach)으로 양분하던 기존의 이분법적 연구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통합적인 접근법 (integrated approach)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Bell Snell-Hornby를 비롯한 많은 번역학자들이 결과물로서의 번역 텍스트 뿐만 아니라 번역과정 역시 번역학의 정당한 연구대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번역과정은 번역사의 머리, 즉 ‘블랙박스’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관찰이나 검증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Bell은 결과물로서의 다양한 번역 텍스트를 분석하고 실제 데이터를 통해 특징들을 찾아냄으로써 이를 통해 번역 과정을 추론하고 검증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간접관찰을 통한 추론은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의존할 경우 번역학연구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에 의존하는 공허한 탁상논의(armchair discussions)가 되고 말 염려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해 번역사들이 실제 번역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을 고려하고 그 각각의 요인들의 역할을 어떻게 파악하며 이를 실제 번역전략 및 테크닉을 선정하기 위한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적 함축(sexual connotation)이 다양하게 사용된 원문 텍스트 부분이 번역된 결과물에서 원문의 성적 정보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중화되었는지, 원문 텍스트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특수적 아이템의 처리, 예를 들어 시트콤 제목, 영화배우 이름,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 같은

것들을 그대로 원문의 형태를 유지하는 이질화(foreignization)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착언어 문화권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즉 이해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naturalization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는지의 결정 역시

5.2 LB 번역 교육에 있어서의 코퍼스의 활용

많은 번역학자들의 경우 번역사가 모국어 또는 A언어(LA) 이외의 언어를 도착어로 하는 번역을 수행할 경우 번역수준 면에서 모국어를 도착어로 하는 번역의 경우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장려하지 않거나 심지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소수 언어가 모국어인 경우(régime spéciale)에는 LB로의 번역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LB번역의 경우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학자들은 네 가지를 꼽고 있다. 우선 출발어의 독특한 언어적 표현에서 자유로와지지 못해 도착어에서도 원문 표현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음으로써 자연스런 도착어 표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즉 Nida (1964)가 지적한 번역조(translationese)를 낳는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다. 두 번째로는 명사와 형용사, 동사와 부사처럼 특정 피수식어를 꾸미기 위한 수식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같이 쓰일 수 있거나 절대로 같이 쓰여서는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기계약’이 해당 언어별로 굳어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위반하는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어색한 표현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Stewart (78-9)가 지적한 것처럼 모국어 구사능력에 비해 각각의 문맥 및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표현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텍스트가 생산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Delisle (137-8)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번역사의 도착어 구사능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텍스트 표현이 장황해져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텍스트의 불필요한 양적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Cheong, 2003: 19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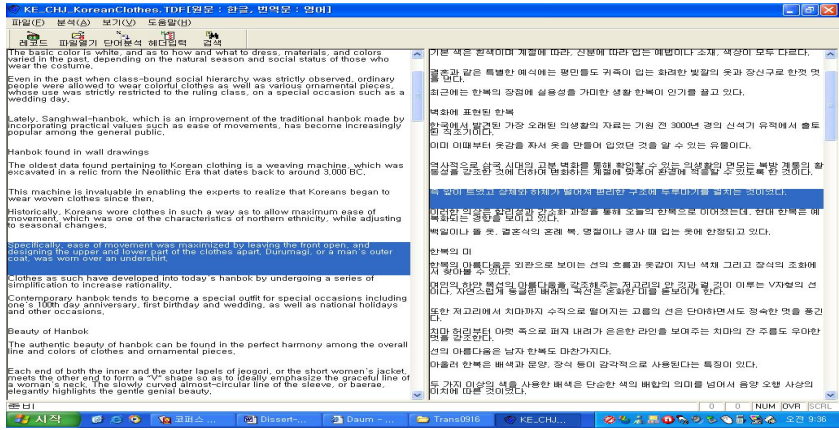
코퍼스를 LB번역교육현장에 사용할 경우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다양한 어휘/표현들이 실제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연스런 표현을 익히고 특히 도착어에서 받아들여지는 호응관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원문 언어인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특징적인 표현들이 자연스런 도착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단어 대 단어, 혹은 문장 대 문장으로 직역하는 데 따른 번역조 양산이란 함정을 인식하고 이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도착어 표현으로 바꾸어줄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또 다양한 도착어 표현 자체에 대한 접근(exposure)을 가능하게 해주어 Stewart 가 지적한 단조로운 표현의 한계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원문 텍스트와 번역문 텍스트로 구성된 병렬 코퍼스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코퍼스를 이용한 번역 교육 가능성을 살펴보자.

아래 코퍼스 화면은 한국의 전통복식문화를 소개하는 원문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한 것의 일부분이다. 오른쪽이 원문인 한국어 텍스트이고, 왼쪽이 번역문인 영어 텍스트이다. 짙은 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원문 문장과 그에 상응하는 번역문 문장을 가리킨다. 원문 문장은 ‘남자의 복장은 앞이 트였고 상체와 하체가 따로 떨어져 편리한 구조에 두루마기를 걸치는 것이었다’인데 이것이 번역문에서는 ‘Specifically, ease of movement was maximized by leaving the front open, and designing the upper and lower part of the cloth apart. Durumagi, or a man’s outer coat, was worn over’로 나타나 있다. 이 문장쌍을 대조해 볼 때 원문의 단어가 번역문의 단어로 단순히 치환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첫눈에 두드러진다. 자세히 보면 원문 텍스트의 단일문장이 번역문에서는 두 문장으로 옮겨져 있고, ‘두루마기’라는 문화특수적 용어가 단순한 음가 표기 이외에 부가설명 정보가 같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이처럼 원문과 번역문을 나란히 비교함으로써 원문의 의미를 번역문 독자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문장경계를 넘나들고 필요한 경우 원문에 없는 정보를 추가제공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된다. 또 ‘편리한 구조’가 ‘ease of movement’로 좀더 뜻을 명확하게 해주는 표현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도 알게 되어 원문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이해를 쉽게 해주는 대안을 사용하고 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완성된 영어 번역문들을 따로 연구하면서 다양한 명사나 형용사 등을 습득하고 그 각각에 호응하는 수식어들

도 익힐 수 있게 되어 영어의 ‘공기계약’을 이해하고, 표현의 다양성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문과 번역문으로 이루어진 코퍼스를 LB 번역교육에 활용함으로써 모국어보다 언어구사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LB 번역에 있어서도 보다 우수한 번역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이상에서 본 논문은 코퍼스 언어학과 코퍼스 중심 번역학의 정의와 발달과정, 학문적 의의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번역중심 코퍼스의 유형을 소개한 후 각각의 유형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경향을 짚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코퍼스 중심 번역학이 현재의 번역결과물에 대한 관심을 벗어나 번역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줄 보다 다양한 연구접근법을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코퍼스를 번역교육현장에 접목시킬 경우, 일반적으로 번역사 지망생들의 언어구사능력, 다양한 번역전략 습득 및 구사를 촉진할 수 있으며, 특히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도착어로 하는 LB 번역 교육에 적용시킬 경우 번역조 문제, 호응이 어색하거나 전반적으로 단조로운 표현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 정호정. 2001. 「번역학에 있어서의 통합모델: 해석이론을 중심으로」,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3, 243-266.
- 정호정. 2002. 「번역텍스트의 양적 확장 현상」,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4:1, 167-189.
- Altenberg, B., & Granger, S. (Eds.). 2002. *Lexis in Contrast: Corpus-based Approache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aker, M. 1996.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H. Somer.
- Beaugrande, R., de & Dressler, W.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Longman.
- Bell, R.T. 1991. *Translation and translating: Theory and Practice*. London: Longman.
- Biber, D. 1993. "Representativeness in Corpus Design." *Literary and Linguistic Computing*, 8:4, 243-57.
- Blum-Kulka, S. 1986. "Shifts of Cohesion and Coherence in Translation." In J. House and S. Blum-Kulka (Eds.). *Interlingu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übingen: Gunter Narr: 17-35.
- Bowker, L. 1998. "Using Specialized Monolingual Native-language Corpora as a Translation Resource: A Pilot Study." *META* 43: 4. Retrieved Feb. 2, 2003 from <<http://www.erudit.org/revue/meta/1998/v43/n4>>.
- Bowker, L. 2001. "Towards a Methodology for a Corpus-based Approach to Translation Evaluation." *META* 46:2, 345-364.
- Bowker, L., and J. Pearson. 2002. *Working with Specialized Language: A Practical Guide to Using Corpor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ampbell, S. 1997. *Translation into the Second Language*. New York: Longman.
- Cheong, Ho-Jeong. 2003. "Target Text Expansion: An Empirical Study."

- FORUM*. 1:1, 181-203.
- Cheong, Ho-Jeong. 2004. *Translated Text Expansion and Contraction Phenomena: A Corpus-based Study of Quantitative Target Text Changes as Reflective of Translator Mediation*. Doctoral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Chesterman, A., and Arrojo, R. 2000. "Forum: Shared Ground in Translation Studies." *Target* 12:1, 151-160.
- Delisle, Jean. 1999. *Terminologie de la traduction: Translation Terminology*.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Fillmore, C. 1992. "'Corpus Linguistics' vs. 'Computer-aided Armchair Linguistics.'" *Directions in Corpus Linguistics*, Mouton de Gruyter, 35-60. (Proceedings from a 1992 Nobel Symposium on Corpus Linguistics, Stockholm).
- Fillmore, C. 1975. "An Alternative to Checklist Theories of Meaning." *BLS*. 1: 123-131.
- Gile, D. 2001. "Shared ground in translation studies: Continuing the debate: Being constructive about shared ground." *Target* 13:1, 149-153.
- Halverson, S. 1998. "Translation Studies and Representative Corpora: Establishing Links between Translation Corpora: Theoretical/Descriptive Categories and a Conception of the Object of Study." *META* 43:4. Retrieved Feb. 2, 2003 from <<http://www.erudit.org/revue/meta/1998/v43/n4>>.
- Hatim, B. 2001. *Teaching and Researching Translation*. Harlow & New York: Longman.
- House, J., and S. Blum-Kulka. 1986. *Interlingu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übingen: Guntar Narr.
- Kenny, D. 1998. "Creatures of habit? What Translators Usually Do with Words." *META* 43(4). Retrieved Feb. 2, 2003 from <<http://www.erudit.org/revue/meta/1998/v43/n4>>.
- Kenny, D. 2001. *Lexis and Creativity in Translation: Corpus-based Study*.

- Manchester and Northampton MA: St. Jerome.
- Klaudy, K. 1993a. "On Explication Hypothesis." In Klaudy, K.J., et al. (Eds.). *Transfere necesse cet. Current Issues of Translation Theory: In Honour of Grgy Rad on his 80th Birthday*. Szombathely: Dniel Berzsényi College, 69-77.
- Klaudy, K. 1993b. "Optional Addition in Translation." In *Translation the Vital Link*. Proceedings of the XIII. FIT World Congress. Vol. 2 London: ITI, 373-378.
- Laviosa, S. 1998a. "The Corpus-based Approach: A New Paradigm in Translation Studies." *META* 43:4. Retrieved March 29, 2003 from <www.erudit.org/revue/meta/1998/v43/n4>.
- Laviosa, S. 1998b. "Core Patterns of Lexical Use in a Comparable Corpus of English Narrative Prose." *META* 43:4. Retrieved Feb 2, 2003, from <<http://www.erudit.org/revue/meta/1998/v43/n4>>.
- Malmkjær, K. 1998b. "Love thy Neighbor: Will Parallel Corpus Endear Linguists to Translators?" *META* 43:4. Retrieved Feb. 2, 2003 from <<http://www.erudit.org/revue/meta/1998/v43/n4>>.
- Mauranen, A. 2000. "Strange Strings in Translated Language: A Study on Corpora." In M. Olohan (Ed.). *Intercultural Faultlines*. Manchester: St. Jerome, 119-142.
- McEnery, T., and A. Wilson. 1996. *Corpus Linguistics*. Edinburgh: Edinburgh Univ. Press.
- Nida, E.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Leiden: E.J. Brill.
- Nord, C. 1991.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Amsterdam: Rodopi.
- Nord, C.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Olohan, M. (Ed.). 2000. *Intercultural Faultlin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Olohan, M. 2002. "Comparable Corpora in Translation Research: Overview of

Recent Analyses Using the Translational English Corpus”, *LREC Language Resources in Translation Work and Research Workshop Proceedings*, 5-9.

- Olohan, M., & M. Baker. 2000. “Reporting *that* in Translated English: Evidence for Subliminal Processes of Explication,”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2, 141-58.
- Øverås, L. (1998). “In Search of the Third Code: An Investigation of Norms in Literary Translation.” *META* 43:4. Retrieved Feb. 2, 2003 from <<http://www.erudit.org/revue/meta/1998/v43/n4>>.
- Snell-Hornby, M. 1995.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tewart, D. 2000. “Conventionality, Creativity and Translated Text: The Implications of Electronic Corpora in Translation.” In M. Olohan (Ed.). *Intercultural Faultlin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72-92.
- Teubert, W. 2002. “The Role of Parallel Corpora in Translation and Multilingual Lexicography.” In B. Altenberg and S. Granger (Eds.). *Lexis in Contrast: Corpus-based Approache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89-214.
- Toury, G.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 Co.
- Tymoczko, M. 1998. “Computerized Corpora and the Future of Translation Studies.” *META* 43:4. Retrieved Feb. 2, 2003 from <<http://www.erudit.org/revue/meta/1998/v43/n4>>.
- Zanettin, F. 1998. “Bilingual Comparable Corpora and the Training of Translators.” *META* 43:4. Retrieved Feb. 2, 2003 from <<http://www.erudit.org/revue/meta/1998/v43/n4>>.
- Zanettin, F. 2000. “Parallel Corpora in Translation Studies: Issues in Corpus Design and Analysis.” In M. Olohan (Ed.). *Intercultural faultlin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105-118.

[Abstract]

A Corpus-based Approach to Translation Studies

Cheong Ho-jeong
(Keimyung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corpus-based approach to translation studies (CTS). As Tymoczko notes, CTS has a promise of providing translation studies as the “most contentious discipline” with a common ground anchored in empirical findings. The basic motivation is to fuel research efforts employing corpus-related methodology by introducing CTS in general and relevant research efforts made thus far. Specifically, respective definitions and evolution of corpus linguistics and CTS will be presented in the first part. The typology of corpora used in TS and the respective significance of different corpora will be discussed in the second part. Thirdly, the foci of current CTS will be summarized in terms of lexical and syntactic orientations, and multi-lingual equivalent term extractions. In so doing, the concept of “Translation Universals (TUs)” will be briefly addressed. A proposal will be made to raise “more diverse modes of interrogation” in CTS so that both translations as the end product of translating and the process itself can be put into perspective at the same time. Finally, a conclusion will be drawn by noting the significance of applying CTS to actual translation classrooms in general, and to LB translation classrooms in particular.

▶주제어: corpus, corpus linguistics, corpus-based approach, translation-driven corpus, parallel corpus, comparable corpus, translation universals, lexical density, token/type ratio, teaching LB translation